

HP, 오는 10월 기업들을 위한 침입 테스트 서비스 선보인다

휴렛패커드(HP)가 오는 10월 기업들을 위한 침해 테스트 서비스인 'HPAC(HP Active Countermeasures)'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C넷이 7월 5일 보도했다.

7월 4일 리처드 브라운 HP 연구소 위험 관리 부문 이사는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는 데 해킹 기술을 사용하겠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제어하기 때문에 고객의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우리는 웬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웬을 확산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HPAC 서비스는 연결된 25만대의 컴퓨터 당 한 대의 서버와 8~10개의 스캐닝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된다. 또 버퍼·힙·스택 오버플로우 등을 만드는 해킹 기술을 이용할 예정이다.

HPAC 서비스 팀은 이 서비스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바로 고치지 않고 위험을 평가한 후 고객들에게 경고하고 심각한 취약성을 조사하게 된다.

HP는 고객 시스템의 취약성을 제대로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HPAC 서비스를 고안했다.

HP는 지난 2001년 이후 자체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이용해 왔다. HP에서 기업 IT 팀은 이미 컴퓨터 긴급 대응팀과 벤더들의 인터넷 게시판과 경고를 감시하고 있다.

한편 HP는 이 서비스를 활성화된 IP 주소가 2만개 이하인 고객사에게 사용자당 1년에 몇 달러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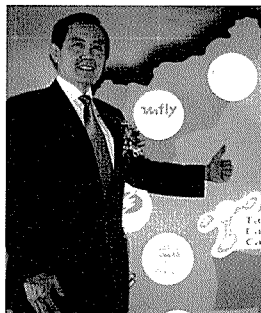
샤프, 새 PDA 선보여



샤프는 7월 4일 도쿄에서 핸드폰 형태의 새 PDA 'W-제로3 es'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인텔의 PXA270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모바일 5.0을 탑재했으며, 2.8인치 컬러 LCD와 슬라이딩 키보드를 갖췄다. 일본의 이동통신사인 월콤은 이 제품을 오는 7월 27일 2만 9800엔(약25만원)에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무선인터넷 전화 프로그램 시작

타이베이시가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에서 무선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타이베이 이지 콜' 서비스를



를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7월 5일(현지시간) 마잉주 타이베이 시장은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타이베이에 무선인터넷 전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타이베이 이지 콜'은 도시 전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계획으로 10개 기업이 연합한 '무선 도시

애플리케이션 협회'가 진행하고 시 당국과 타이페이 컴퓨터 협회가 후원한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도시 전체가 무선 환경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는 세계 최초다.

서비스 확산을 위해 타이베이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4000개 이상, 대학 캠퍼스에 1000개 이상의 접속 포인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8월 이전에만 수백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40만명의 학생·부모·교사에게 이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타이베이는 올해 말까지 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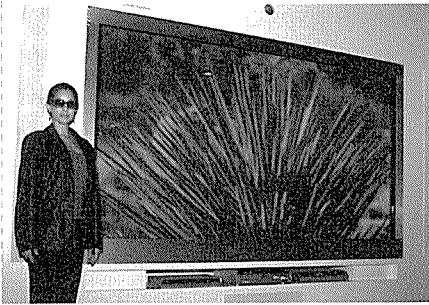
다니엘 옹 타이페이 컴퓨터 협회 대변인은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경우 타이페이 모델이 세계로 확산될 것"이며 "대만 IT 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잉주 시장은 이날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타이페이 이지 콜' 서비스의 첫번째 고객으로 등록했다.

마쓰시타, 세계 최대 103인치 PDP TV 출시

마쓰시타전기산업이 세계 최대급인 '103인치' PDP TV의 수주를 개시하며 올가을부터 정식 납품을 통해 초대화면 PDP TV 시대의 막을 연다.

마쓰시타는 미국 업무용 시장에 103인치 완전 고선명(HD) PDP TV를 판매키로 하고 7월 10일부터 수주를 개시했다고 7



월 11일 밝혔다. 올 가을 정식 납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도 정식 판매할 예정이다.

마쓰시타가 개발한 '103v 완전 HD PDP TV'는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06 국제 CES'에서 전격 공개된 최신행 대형 평판TV. 당시 마쓰시타 독자적인 영상기술을 통해 실현한 압도적인 대화면과 고화질이 평가돼 제품 출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업무용 시장을 우선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대화면 크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미 방송국 스튜디오 모니터나 전자간판 등 상업 용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요가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일반 가정용으로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위성 방송, 블루레이디스크(BD) 등 차세대 DVD 콘텐츠 확충에 따라 100인치급의 대화면과 고화질을 양립하는 디바이스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마쓰시타는 103v가 초대화면이면서도 자발광형인 PDP 특유의 고휘도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용 흡씨어터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가정용 및 업무용으로 연 5,000대 판매가 목표며 내년에는 공장 증설 효과로 2만대까지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샤프 등 14개 LCD 패널 및 소재업계, 곡면 LCD 패널 공동 개발

샤프·쓰미토모화학·다이닛폰인쇄 등 일본의 14개 LCD 패널 및 소재기업들이 오는 2009년까지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차세대 초박막 곡면 LCD 패널'을 공동 개발한다.

7월 13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샤프 등 14개 기업들은 최근 차세대 곡면 LCD 패널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차세대모바일용 표시재료기술연구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올해 31억엔(약 260억원)의 초기 자금이 투입되며 독립행정법인인 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 등의 원조금을 통해 매년 순차적으로 개발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개발되는 곡면 패널 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박형 LCD 패널보다 불과 3분의 1 두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질도 빨강색·녹색·청색 등 3가지 원색으로 기존 LCD TV 수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컨소시엄 측은 "2009년부터 주로 운반하기 쉬운 휴대용 디스플레이나 곡면 디스플레이 등의 용도로 수요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S-야후 메신저 시스템 연동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가 인스턴트 메신저 시스템을 연동, 사용자들이 타 서비스 이용자와 자유롭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야후와 MS는 각자의 인스턴트 메신저(IM) 시스템간 호환을 위해 미국,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MS와 야후의 메신저 연동 서비스가 웹2.0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인터넷 시장 주도권 싸움에서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양사의 연합전선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OL은 지난해 12월 자사 AIM 서비스를 구글의 '구글토크'와 연동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연동 서비스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AOL은 또 이미 매킨토시용 IM 서비스인 애플의 '아이챗'과는 연동된다.

르네사스, 마이크로컨트롤러 점유율 30%로

르네사스테크놀로지가 디지털 가전·자동차 제어용 마이크로컨트롤러사업을 강화한다.

7월 6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르네사스는 오는 2011년까지 현재 약 20%대인 세계 마이크로컨트롤러 점유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르네사스는 회로 미세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웨이퍼를 사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 생산 비율도 크게 올린다는 방침이다. 르네사스가 생산 중인 첨단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의 회로선폭은 130nm인데 내년부터는 90nm 제품 생산도 개시한다.